

나주시, 내년 국비 5403억 확보…‘에너지 중심도시’ 속도

사회간접자본 제외 순수 국비 1997억…7개 사업 135억 증액
에너지 전문과학관, 인재·창업 밸리 등 대형 국책사업 본격화

나주시가 내년 정부예산에서 총 5403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미래 에너지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가 국가 도로·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하고 확보한 순수 국비는 1997억원으로 전년 대비 594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개 사업이 135억 원 증액되며 에너지 전문과학관, K-그리드 인재·

창업 밸리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됐다.

460억원 규모의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기본계획·설계비가 반영되면서 건립이 확정됐다.

나주시는 부지 확보와 타당성 검증 절차를 마친 만큼 2026년부터 산업 현장형 전시·교육·연구가 연계된 국가 대표 에너지 과학관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90억원 규모의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도 국비 245억원이 반영되며 차세대 전력망과 재생에너지·AI 분야의 실전형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고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50억 원) 포함으로 관련 기술 국산화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핵융합 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에는 120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중 30억원은 국회에서 증액됐다.

핵융합 발전의 핵심 부품 성능을 극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주시는 관련 소재·부품 산업 집적 효과와 차세대 에너지 시스

템 실증 기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肯泰) 출연금 250억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체계 구축 160억원,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93억원 등이 포함되며 에너지 신산업·혁신 인프라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문화·관광·생태 분야 예산도 고르게 반영됐다. 나주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6억원, 영산대교 재가설 설계비 10억원, 영산강 도시생태축 복원 7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68억원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 문화·관광 접근성과 생태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농촌공간정비, 노후 상하수도 정비, 나주콜버스·100원택시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예산도 반영됐으며, 나주를 경유하는 광주·강진 고속도로 668억 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1016억원 등 광역교통망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됐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에너지 전문과학관, K-그리드 밸리, 핵융합 기술 인프라 등 핵심 미래사업이 동시에 반영된 것은 나주가 미래 에너지 전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는 상징적 성과”라며 “대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반영 사업은 보완해 재도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친환경 축산 앞장’ 악취 저감 10개 농장 선정



‘축산악취 저감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이 이상익(가운데) 함평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1년 유예’

고물가·경기 침체 부담 완화…2027년 1월부터 인상

나주시가 2026년 1월로 예정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1년 연기해 2027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애초 나주시는 2024~2027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인상을 추진했으나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논의와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유예를 확정했다.

인상 예정이었던 요금은 가정용 기준 상수도 t

당 700원→760원(9%↑), 하수도 330원→430원(29%↑)이다.

나주시는 할후 인상분을 유수율 제고, 노후관 교체, 쟁크홀 예방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추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민들에게 미리 홍보하고 안내해 협조를 구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자발적 환경 개선 실천 농가 발굴…청정 축산 문화 정착 유도

함평군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축산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지역 축산농가 10곳을 선정해 ‘축산악취 저감 유공자’ 표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이후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 온 농가를 격려하고, 지역 내 친환경 축산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면 박남열(신성농장)이다.

이 외에도 함평군은 청정 축산환경 조성과 식품 안전 신뢰도 향상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된 20개 농가에 각각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내년에 사업 대상을 40개 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함평읍 차철원(천지연한우농장), 전광군(옥산축산) ▲손불면 유용문(으뜸농장) ▲신광면 기남춘(돈벗영농조합법인) ▲학교면 신영철(세청농장) ▲엄다면 주장평(C.H.H.Farm) ▲대동면 윤지윤(착한농장) ▲나산면 임원택(신평농장) ▲해보면 김진영(해오름농장) ▲월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흥군, 공적 항공마일리지 모아 ‘온기 나눔’

2055만원 상당 생필품 구입
전기밥솥 등 197점 소외이웃에

장흥군 공무원들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마련한 2055만원 상당의 생필품 197점을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사진>

이번 기부는 매년 일정량이 사라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되지 않는 자원으로 보고, 이를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아진 마일리지는 항공사 마일리지몰을 통해 전기밥솥, 전기담요, 치약, 화장지 등 실생활 중심의 필수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

이렇게 확보한 생필품은 장흥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개인별 적립, 유효기간, 활용처 제한 등의 한계로 인해 활용률이 낮았다. 공무국외출장만으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의 혜택을 이용할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기에는 어렵고 다른 직원들에게 양도 등도 불가능해 유효기간 만료 및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기부는 작은 나눔이 군

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향후에도 공적 마일리지뿐 아니라 공직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원을 지역 복지에 적극적으로 연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 청소년 폭력예방 '또래상담' 성과 공유

담양군이 최근 담빛청소년문화의집 3층 교육실에서 ‘2025년 청소년 폭력예방 또래상담 사업 평가회’를 열고 한 해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사진>

평가회에는 관내 초·중·고 또래상담 동아리를 지도하는 교사 8명이 참여해 운영 과정과 활동 사례를 돌아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내년도 또래상담 연합회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참여 교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담양군은 지역 13개교 또래상담 동아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하반기 폭력예방 캠페인, 학교 방문



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보호 체계를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 전남 유일 ‘영양사업 우수기관’



영양관리 실적 부문 복지부 장관상

강진군이 2025년 영양의 날 기념 우공포상에서 ‘민족 영양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장을 받았다. <사진>

이번 표장은 지역의 영양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 기관에 수여되는 것으로 전남에서는 강진군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진군은 국민영양관리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 영양 문제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책 운영과 취약계층 영양지원 확대, 주민 참여형 비만예방관리사업 운영 등

사업이 지역사회 영양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 점이 인정됐다. 특히 군민의 식생활 환경 개선과 영양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강진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춘 신규 영양·건강 프로그램 발굴, 주민 참여 확대, 취약계층 영양지원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영양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국민영양관리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 영양 문제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책 운영과 취약계층 영양지원 확대, 주민 참여형 비만예방관리사업 운영 등

/강진=남철희 기자 choul@